

# 나주시, 우유공장에서 간부회의 연 이유는

## “어려움 처한 지역기업 살리자” 남양유업서 이동 회의 시, 회의때 지역생산 음료수 마시기 등 구매운동 전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을 살리는 길이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8일 오후 나주시 금천면 남양유업 나주공장에서 눈길을 끄는 회의가 열렸다. 임성훈 나주시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남양유업을 찾아 ‘이동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이 이른바 영업사원 ‘막달 파동’ 매출 급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 지역의 대표적 기업이자 지역경제의 한 축이기도 한 남양유업의 어려움에 나주시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나주시가 간부회의를 현장을 찾아

연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임 시장은 “(막달 파동으로) 어려움이 큰 지역 기업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간부회의를 이곳에서 하게 됐다”며 “회사도 이번 위기를 전회회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낙농가의 원유 관로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업체의 매출 급감은 곧바로 지역민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지역 생산제품 구매와 우유 더 먹

기 운동 등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이와 관련 각종 회의의 때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음료수 먹기와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남양유업이 전 사적으로 폐교된 남양유업이 전 사적으로 폐교된 유관기관 임직원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창원 남양유업 나주공장장은 “나주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내고향 상품 애용하기와 기업사랑운동이

기업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공장증설과 고음확대 등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금천면 촌곡리 10만2000여㎡ 부지에 전체면적 4만5000여㎡ 규모의 생산공장과 물류창고 등이 지난 2008년 준공돼 가동 중이다. 사업비 950억원이 투입됐으며 올 초부터 커피공장이 추가로 들어섰다. 우유와 유제품, 커피 등 38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nson@



전통 된장마을 고추말리기 전통 된장마을로 유명한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에서 8일 아낙네들이 고추를 말리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신기마을은 1년에 5t의 된장과 2t의 고추장을 생산해 짭짤한 소독을 올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 영암군, 재정상태 ‘매우 양호’

### 지방세 8억 초과 징수... 자체수입도 379억

영암군이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받은 결과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영암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해 영암군의회 정례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 회계 전반에 대해 20일간 결산 심사를 받았다. 결산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액은 559억8224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억7624만원을 초과 징수했다. 세외수입은 896억107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379억3482만원이 수납됐다. 특히 영암군은 지난해 예산의 효율화 및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해 일반운임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를 5~10%씩 일괄 절감해 지역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투자해왔다. 또 1981년 지어진 영암군 청사 본관동이 낡고 협소해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특별교부세 등 22억원으로 신축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해 2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 하반기 장학생 선발

###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강진원)은 이달말까지 2013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성적우수 30명(4650만원), 특기자 7명(500만원), 복지분야 16명(1790만원), 다문화분야 2명(80

만원), 한부모·가정위탁분야 4명(160만원), 다자녀분야 5명(1000만원), 장학생 2명(100만원), 시설보호분야 1명(1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강진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관내 고교 졸업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참고. /강진=남철희기자 chou@

## “문화교류로 우의 돈독히”... 26년 이어온 한·일 캠프

### 담양 국제청소년재단 오사카 어린이연합회 매년 양국 번갈아 개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26년간 이어 온 청소년 교류캠프가 화제를 낳고 있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수북면에 있는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이 1987년 이후 26년째 일본 오사카 어린이연합회(이사장 나가야마 히로미)와 ‘한·일 교류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두 단체는 한·일 청소년들이 친선 문화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국제적인 안목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캠프를 시작했다. 그해 8월 14일~16일 양국 109명의 인원이 참가한 ‘제1회 한·일 학생 친선교류’가 담양에서 열린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교류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것을 시작으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번갈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본 오사카해양센터에서 제36회 교류캠프가 진행 중이다. 짝궁 합류식을 시작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교류캠프에는 학생과 관계자 등 24명으로 구성된 한국팀이 참석해 일본측 56명의 참가자와 함께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교류단과 함께 참석한 이강열 이사장은 “미래를 개척하려는 취지로 시작한 교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매우 기쁘다”면서 “그때 참석한 어린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자녀들이 오늘날 캠프에 참가하면 서 대를 이어 ‘아름다운 교류’의 모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평소 오후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오사카 55층 전망대를 특별히 개방하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게양하는 신중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 전북은 로컬푸드 열풍

### 정읍, 7억 들여 직매장 11월 개설 부안, 정부공모사업 경영인 모집

정읍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 부안군이 군 차원에서 로컬푸드 육성에 올인하기로 하는 등 전북 지자체들이 로컬푸드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11월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직매장은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 시가지에 지상 2층, 전체 건물면적 1300㎡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서는 정읍지역 농민이 직접 생산한 200여가지의 채소와 곡식, 가공식품, 유류를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당일 새벽에 생산한 것을 당일 유통해 신선도를 높이고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해 안전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성기 정읍시장은 “직매장은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싸면서도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생의 유통체계”라며 “효과가 크면 점차 확대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안군도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9일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경영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6차 산업인 로컬푸드 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부안팍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내 농림수산물체를 모아 가치 ‘부안팍 로컬푸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수산물단체 및 농민수산인이 사업 참여 동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10월에 결정되는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20억~30억원의 80%를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안군 농촌협력과 관계자는 “로컬푸드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방식으로 완주에서는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생산자 육성 및 컨설팅, 홍보를 부안팍 로컬푸드에서 함께 해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 전북

### 연일 수은주 전국 1위 ‘짬통도시’ 전주... 왜?

## 녹지 줄고 고층건물 즐비 ‘열섬현상’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연일 전국 최고수준에 육박하면서 ‘짬통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8월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6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전주의 낮 최고기온은 32~37.6도로 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8월 초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34.2도로 대구(34.4도)와 불과 0.2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7일 낮 최고기온인 37.6도는 전주기상대가 198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8월 기온 중 역대 3번째로 높은 온도였다. 전주가 이렇게 짬통 도시가 된 이유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말미암은 녹지 감소와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나타난 ‘열섬현상’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주의 급격한 도시화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면서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기능이 줄었고 아파트와 높은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나타난 열섬현상은 이를 부채질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전주에는 2000년을 전후해 도심 하천 주변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들어섰다. 전주시는 1997년 이후 삼천이 자리한 삼천동 등에 15~2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30여개의 건물을 승선했고, 전주천 주변에도 40여개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난개발을 해왔다. 이 같은 난개발은 하천변에서 형성되는 ‘바람 길’을 막아 전주의 수은주

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주도 점차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국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서 “실용을 통해 전주의 바람 길은 새만금~혁신도시·서부 신시가지 구간에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건물을 짓거나 개를 할 때 바람 길을 고려한 건물 배치와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도심에 찬 공기를 공급하는 낮은 야산이나 하천 주변에는 더는 고층 아파트나 건물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단신

### 정읍 영장류시험본부, 우수실험실 인증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정읍 전북영장류시험본부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LP(우수실험실 운영규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증 분야는 영장류 반복투여 독성시험, 설치류 단회투여 독성시험, 흡입독성 시험 분야 등 3개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 식약처, 농촌진흥청이

GLP 기관을 지정한다. 특히 흡입독성 시험 분야에서는 2009년 농진청,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이어 이번에 식약처 인증까지 추가함으로써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군산 설립도서관 12일부터 시범운영

군산 설립도서관이 1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비 8억3200만원을 투입한 설립도서관은 연면적 1157㎡(부지면적 723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만5168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1층에는 유아·아동자료실, 2층에는 일반자료실, 3층에는 열람실을 배치

해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9월말 개관 예정으로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하며 도서대출(1인당 3권, 14일) 및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 음 예방 노인복지시설 전수조사

고창군이 전염성이 높은 ‘음’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군 보건소는 북고병인 음의 발병이 집단생활을 하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여름철 노인 요양시설 음 발생 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이달 말까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복지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발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노인시설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음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주변에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시설이용자에게는 방역약품을 배정함으로써 소독을 강화한다. /고창=음영희기자 cy0370@

### 부안 마실길서 12~24일 전시회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변산반도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부안 마실길에서 ‘마실길 전시회’가 열린다. (재)변산마실길이 12일~24일 부안마실길 구간인 격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아름다운 마실길을 배경으로 사진·시화·암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새만금임시홍보관과

사랑의 낙조공원, 대명리조트 변산저택에 이은 릴레이 전시회로 마실길을 주제로 10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자 가자! 바다로, 마실길과 함께하는 부안예술여름 향연’이란 주제의 공연도 펼쳐진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 폭염엔 계곡이 최고

볼벌더위가 기승을 부린 8일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계곡은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적거렸다. 설천면 덕유산리조트 입구에서 구천동 야영장 입구로 이

어지는 8km 구간의 구천동 계곡은 물놀이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연평뉴스